

● Donghak  
Peasant  
Revolution

● 동학농민혁명

# 사랑 다시 하늘이 된다

#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은 2004년 3월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10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족의 대화합과 통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기념 및 추모 사업, 연구조사 사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사업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념재단은 황토현전적지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전라북도로부터 위탁받아 상설전시 및 기획전 개최, 각종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동학농민혁명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



3월 봉기 기록화

1894년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전민적 항쟁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세도정치 아래에서 탐관오리의 가렴주구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떨쳐 일어난 반봉건 항쟁이며, 외세의 국권침탈에 맞서 보국 안민을 이루고자 했던 반외세 민족항쟁이다.

1894년 동학농민군은 고부농민봉기를 도화선으로 무장에서 포고문을 공포한 후 복상하여 고부관아 재점령, 백산대회를 열어 부대로서의 대오를 정비하고 정읍 황토현과 전남 장성 황룡강에서 전라감영군과 서울에서 파견된 경군(京軍)을 차례로 격파한 후 파죽지세로 제1차 점령목표였던 전라도 수부 전주성을 함락시켰다.

조선 건국자의 본향이자 조선 정부 조세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던 전주성이 함락되자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게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군대 파병을 요청하였고, 이에 일본도 자국민 보호 등을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였다.

국내외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조선 정부는 초토사 홍계훈을 통해 동학농민군과 협상을 추진, 청군과 일본군을 조선에서 철병시킬 명분을 위해 동학농민군에게 전주성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였다.



시발풍문

Donghak  
Peasant  
Revolution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군은 외국 군대 철병을 위해 구국의 결단으로 폐정개혁 27개조를 국왕에게 보고한다는 것과 동학농민군이 해산할 때 신변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고 이른바 전주화약을 체결, 전주성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조선을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삼고자 진출한 일본군은 조선 정부의 철병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도리어 6월 21일 경복궁을 무단점령하고 연달아 친일내각 수립, 청일전쟁 도발 등으로 동아시아 정세를 격동시켰다. 이에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을 내쫓고자 9월 초 반일항쟁의 기치를 들고 삼례에서 제2차 봉기를 단행, 서울을 향해 진군하였다.

그러던 중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을 맞아 전투를 벌였으나 일제의 근대적인 신무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쓰러졌으며, 결국 동학농민혁명은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만민평등과 구국애민정신의 표상인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정신은 항일의병, 3·1운동, 4·19혁명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기틀이 되었다.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차원 높은 인본주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은 중세 사회를 마감 짓고 만민평등을 추구한, 우리나라 근대사의 첫새벽을 연 민주주의 시원(始原)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한 세기 동안 전라도 지역에 국한된 빈란 사건으로 왜곡된 채 역사의 뒤편길에 버려졌다가 110년이 지난 뒤에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04년)되어 역사적 의미의 복권과 함께 그 명예가 회복되었다.

# 동학농민혁명 일지

일자는 음력입니다. ( )는 양력.

4. 5.  
동학창도

1860

1892

10. 21.  
공주집회

11. 2.  
삼례집회



최제우의 초상화

## 동학창도 1860. 4. 5.

1860년 경주에 사는 수운 최제우가 인간평등사상과 후천 개벽사상을 바탕으로 동학을 창도하였다. 동학은 유불선의 장점을 융합한 한국적 종교이다.



공주집회터  
(충남 공주시 금성동)

## 공주집회 1892. 10. 21.(12. 9.)

1892년 10월 동학 교단의 서장옥 등 지도부는 충청도 감영이 있는 공주에서 동학 교조 최제우의 신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삼례집회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 삼례집회 1892. 11. 2.(12. 20.)

1892년 11월 최시형의 명에 따라 동학교도들은 전라도 삼례에 모여 교조 최제우의 신원과 동학 포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보은집회터(충북 보은군 장안면)

## 보은·원평집회 1893. 3. 11.(4. 26.)

1893년 3월 최시형의 지시에 따라 약 2만 명의 동학 교도들이 충청도 보은 장내리에 모여 책외양의 기치를 내걸고 집회를 열었다.

1893년 3월 보은집회가 열리고 있을 무렵, 전라도 금구 원평에서도 전봉준을 비롯한 전라도 사회개혁세력이 중심이 되어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원평집회터(전북 김제시 금산면)

## 사발통문 봉기계획 모의 1893. 11.

전봉준 등 20여 명이 당시 고부군 서부면 죽산리 대외마을 송두호의 집에서 조병갑의 학정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였다. 이들은 조병갑을 죽이고 전라감영을 함락시켜 서울로 가자는 혁명적인 모의를 결의하였고, 이 내용을 담은 사발통문을 작성하고 각 마을의 집강에게 보냈다.



동학혁명모의탑  
(전북 정읍시 고부면)

## 고부농민봉기 1894. 1. 10.(2. 14.)

1894년 1월 전봉준이 이끄는 고부 농민들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과 학정에서 벗어나고자 말목장터에서 봉기하여 고부관아를 점령하였으며, 무기고를 열어 무장하고 수탈의 상징인 만석보를 혁파하였다.



고부관아터  
(전북 정읍시 고부면)

3. 11.  
보은·원평집회

11.  
사찰통문 봉기계획 모의

1893

1894

1. 10.  
고부농민봉기

3. 20.  
무장기포

3. 26.경  
백산대회

4. 7.  
황토현전투

4. 23.  
황룡전투

4. 27.  
전주성 점령

5. 8.경  
전주화약 체결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전북 고창군 공음면)

### 무장기포 1894. 3. 20.(4. 25.)

1894년 3월 전봉준은 전라도 무장에서 손화중의 도움을 받아 약 4,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포고문을 선포하였다.



동학혁명 백산장의비  
(전북 부안군 백산면)

### 백산대회 1894. 3. 26.경(5. 1.)

1894년 3월 각지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백산에 모여 전봉준을 총대장, 김개남·손화중을 총관령으로 하는 지휘 체계와 조직을 구성하고 격문과 4대 명의, 12개조 기율을 발표함으로써 동학농민군으로서 조직과 체계를 갖추었다.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전북 정읍시 덕천면)

### 황토현전투 1894. 4. 7.(5. 11.)

1894년 4월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황토현에서 전라 감영군과 싸워 크게 승리하였다.



동학농민군승전기념탑  
(전남 장성군 함릉면)

### 황룡전투 1894. 4. 23.(5. 27.)

1894년 4월 동학농민군은 장성 함릉에서 대관 이학승이 이끄는 조선 정부군인 경군과 싸워 승리하였다.



동학농민군 전주입성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 전주성 점령 1894. 4. 27.(5. 31.)

1894년 4월 전주성 공격에 나선 동학농민군은 서문, 북문, 남문을 공격하여 마침내 조선왕조의 발상지이자 전라도의 수부인 전주성을 장악하였다.



전주 풍남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 전주화약 체결 1894. 5. 8.경(6. 11.)

1894년 5월 동학농민군은 전주성에서 철수하고 흥계훈은 동학농민군의 신변을 보장하고 폐정개혁안을 임금에게 올린다는 조건으로 동학농민군 총대장 전봉준과 초토사 흥계훈 사이에 타협이 맺어졌다. 이를 '전주화약'이라 한다.

6. 21.  
일본군 경복궁 점령  
6. 23.  
일본군 청군 공격  
7. 6.  
집강소 설치

**1894**

9. 10.경  
삼례봉기  
9. 18.  
청산기포

12. 2.  
전봉준 불잡힘  
12. 15.  
석대들 전투  
12. 18.  
복실전투

11. 8.  
우금치전투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 일본군 경복궁 점령 1894. 6. 21.(7.23.)

1894년 6월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철수하여 내정이 안정되었으므로 일본군의 철병을 요구하지만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 정부를 장악하였다.



청일전쟁이 발발한 풍도 앞바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 일본군 청군 공격 1894. 6. 23.(7.25.)

조선 정부를 장악한 일본은 청나라와의 전쟁을 위한 공작을 펴고 결국, 6월 23일 아산만 앞 풍도에 주둔한 청군을 공격하여 청일전쟁(7월 1일 선전포고)을 일으켰다.



원평 집강소  
(전북 김제시 금산면)

### 집강소 설치 1894. 7. 6.(8. 6.)

1894년 7월 동학농민군 총대장 전봉준과 전라감사 김학진은 관민상화(官民相和)의 원칙에 따라 조선 정부와 동학농민군이 협력하여 치안질서를 바로 잡기로 하고 전라도 내 53개 군현에 집강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삼례봉기 역사광장  
(전북 완주군 삼례읍)

### 삼례봉기 1894. 9. 10.경(10.8.)

1894년 9월 전봉준은 일본군이 정권을 침탈하고 내정간섭이 심해지자 전라도 삼례에 대소소를 설치하고 재봉기에 착수하였다. 이후 군기와 군수미 확보에 주력한 전봉준은 논산에서 손병희가 이끄는 동학농민군과 합류하여 남북접연합군이 구성되었다.



동학혁명군 재기포기념비  
(충북 옥천군 청산면)

### 청산기포 1894. 9. 18.(10. 16.)

1894년 9월 동학 2세 교조 최시형은 함께 기포하자자 전봉준의 요청을 받아들여 충청도 청산에서 각 포의 접주들을 불러 모아 놓고 기포령을 내렸다.



동학혁명군 위령탑  
(충남 공주시 금학동)

### 우금치전투 1894. 11. 8.(12. 4.)

1894년 11월 공주 우금치에서 수만의 동학농민군은 관군과 일본군 연합군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결국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하였다.

1. 24.  
대둔산전투

3. 30.  
전봉준 등 교수형 당함

1895

2010

2. 24.(월)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출범

2004 3.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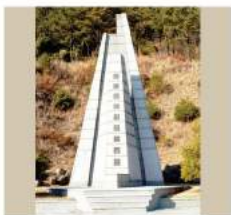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



전봉준 파체지  
(전북 순창군 쌍치면)

### 전봉준 붙잡힘 1894. 12. 2.(12. 28.)

1894년 12월 동학농민군 최고지도자 전봉준이 순창 피노리에서 체포되었다.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탑  
(전남 장흥군 장흥읍)

### 석대들 전투 1895. 12. 15.(1. 10.)

1894년 12월 이방언이 이끄는 장흥지역 동학농민군 수만 명이 장흥 석대들에서 일본군 및 민보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하였다.



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충북 보은군 보은읍)

### 복실전투 1894. 12. 18.(1. 13.)

1894년 12월 손병희가 이끄는 복실농민군이 충청도 보은 복실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하였다.



대둔산 전투지  
(전북 완주군 운주면)

### 대둔산전투 1895. 1. 24.(2. 18.)

1895년 1월 대둔산에서 약 3개월간 웅거하고 있던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 소년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전사하였다.



일본 영사관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무아문으로 이송되는 전봉준 사진

### 전봉준 등 교수형 당함 1895. 3. 30.(4. 24.)

1895년 3월 전봉준,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등 주요 지도자가 교수형 당하였다.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소장유물



사발통문 | 42×30cm

1893년 11월 전봉준과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이 고부군 서부면 죽산리 송두호의 집에 모여 작성한 것으로 동학농민군이 남긴 대표적 유물이다.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33호)



전라도고부민란시초 | 174×19cm

전라감영에서 작성된 문서로 고부농민봉기의 발생원인과 전개 과정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동학농민군의 조직체계와 지도자의 인적 사항 등이 담겨있다.



형사재판원본 | 20×28cm(복제품)

동학농민혁명 관련자에 대한 판결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당시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소장처:국가기록원)

윤주는 호패 | 1.5×9.5cm

갑오년 당시,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였던 윤주는의 호패이다.

전라도 강진과 해남지역에서 일본군과 관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는 등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던 윤주는은 결국 관군에 붙잡혀 공개처형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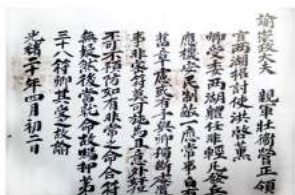
호패는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닌 현재의 신분증서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 양호전기 | 21×31.5cm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설치된 '양호초토영'에서 주고 받은 전보를 일자별로 정리해 놓은 기록물이다.  
이 유물에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조선정부의 대책과 6월 11일(양력) 체결된 '전주화약'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34호)



#### 홍계훈 유서 | 67×58cm

1894년 4월 고종이 동학농민군 토벌 책임자인 양호초토사 홍계훈에게 내려준 명령서로, 이 유물은 현존하는 조선의 밀부유서 중 가장 후대에 발급된 유서의 하나로, 동학농민혁명 당시 군권이 홍계훈에게 있었음을 보여 주는 귀중한 유물이다.



#### 홍선대원군 효유문 | 117×27cm

1894년 9월 홍선대원군이 동학농민군에게 해산할 것을 회유하는 내용이 담긴 효유문이다. 문서에는 대원군이 동학농민군에게 생업에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 유물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홍선대원군과 동학농민군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연구 자료이다.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35호)



#### 장태 | 138×53cm

쌀을 넣어 기르는 용도로 만들어진 장태는 1894년 4월 동학농민군이 서울에서 파견된 경군을 장태로 승리를 거둔 장성 황룡 전투에서 무기로 활용되었다.  
동학농민군은 큰 장태를 만들어 내부에 밭짚을 가득 넣고 뒤에 숨어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거나, 불을 붙여 굴리며 경군과 전투를 벌였다.



#### 황종모 창 | 4×77cm

동학농민혁명 당시 황종모가 사용한 창이다.  
그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김제지역 책임자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우금치 전투 후, 일본군에 체포되어 김제에서 처형당했다. 이 창은 황종모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다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위탁한 것이다.



#### 물침첩 | 12×29cm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문서로, 일종의 신원 보증서와 같이 사용된 유물이다.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완전성과 희귀성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1894~5년 한반도에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세계 유일의 기록이다. 세계 여러 곳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났지만,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세계사적인 가치가 있다. 또한 동학농민군, 정부, 관료, 진압군, 민간지식인 등 여러 주체가 각각의 관점에서 인식한 기록으로, 하나의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된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완전성과 희귀성이 있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노력

-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발족(2015. 6. 2.)
-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심포지엄 개최(2015. 6. 10.)
- 문화재청에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2015. 8. 31.)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가치

동학농민혁명은 1894~5년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동학농민군은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은 제폭구민(除暴救民, 폭정을 제거하여 백성을 구함)으로 인간존중의 사회를 지향하였으며, 척왜(斥倭)를 내세워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여 자주를 추구하였으며, 관민협치(官民協治, 관리와 백성이 상의하여 함께 다스리는 것)의 집강소(執綱所)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하였으며, 광제창생(廣濟蒼生, 널리 민중을 구제)과 보국안민(輔國安民, 나라를 돕고 민중을 편안하게 함)으로 평등사회와 민주사회를 지향하였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인간존중, 자주, 직접 민주주의, 평등, 민주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동학농민군의 정신이 표현된 것으로 인류가 지켜 내야 할 소중한 기록유산이다.

## 세계기록유산



유네스코가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화유산을 지칭한다. 세계문화에 영향을 주는 기록물들 가운데 미적·사회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유네스코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자료들은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받게 된다.

유네스코는 1995년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을 보존·이용하기 위해 기록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효과적인 보존수단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 기록유산 사업을 시작하였다.

# value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주요 목록 (총 171건, 1만1천여쪽)

- 동학농민군 임명장과 회고록 등 동학농민군 기록 27건
- 동학농민군 진압에 가담한 관료와 진압군의 보고서 등 조선정부 기록 115건
- 일반인으로서 진압에 참여하고 기록한 문집과 일기 등 민간진압 기록 16건
- 개인이 목격하거나 구전된 내용을 기록한 개인 견문 기록 11건
-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일본 측 기록 2건

## 주요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보유기관(총 9곳)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관(50건)
- 고려대학교 도서관(30건)
- 국가기록원(5건)
- 국립중앙도서관(5건)
- 국사편찬위원회(6건)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60건)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3건)
- 천도교 중앙총부(10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앞으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2017년 문화재청의 등재 대상 목록에 포함되고, 나아가 2018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동학농민혁명 주요 기록물

### 동학농민군 기록물



순교약력 | 16×24cm

남원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역사적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유태홍이라는 인물이 진술을 하고 최병헌이 기술하여 남원종리원에서 간행한 책이다.



동학사 | 26×18cm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했던 오지영이 동학의 창도에서부터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전개상황 그리고 1930년대 천도교 혁신 운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술한 기록물이다.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 조선정부 기록물



전봉준공초 | 39×21cm

동학농민군 지도자인 전봉준 심문 내용을 정리한 기록물이다. 전봉준은 체포된 후 신설 재판기관인 법무아문 재판장에서 모두 5차례 심문을 받았다. 전봉준의 진술에는 당시 국내 상황과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 등이 비교적 상세히 담겨져 있다.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계초존안 | 29.5×20cm

의정부에서 1894년 7월 21일부터 같은 해 11월 20일 사이에 올린 사항을 의정부 기록국이 기록한 책으로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과 집강소 관련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민간진압 기록물



난파유고 | 19×30cm

1894년 당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던 전라도 나주의 도통장(都統將)으로 활동했던 정석진의 문집이다. 이 문집은 손화중, 최경선 등이 이끌던 나주의 동학농민군과 나주목사 민종열, 영장 아원우 등이 지휘하던 수성군 사이에 벌어졌던 나주성 전투를 이해하는데 매우 귀중한 기록물이다.



창계신공실기 | 28.7×19.7cm

경상도 의흥·군위·칠곡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에 맞섰던 유생 신석찬이 일기체 형식으로 정리한 기록물이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경상도 지역의 농민군과 민보군의 활동을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개인건문 기록물



갑오실기 | 30.5×22.5cm

1894년 3월부터 12월까지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과 청일전쟁, 갑오개혁 등의 내용이 날짜별로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작성자는 알 수 없으나 동학농민군의 활동상황 및 진압 대책과 관련된 각 감영과 순무영의 보고서 등도 담겨 있다.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약제일기 | 27×19.5cm

성균관에 재직하던 김약제가 작성한 일기체의 기록물로 총 4권 중 2권과 3권에 1894년 당시 동학농민혁명 상황과 함께 중앙 정계의 사정을 살펴 기록하고 있다.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 일본측 기록물



주한일본공사관기록 | 20×25cm

1894년 3월부터 1910년까지 주한일본공사관에서 일본 각급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을 모아 놓은 기록물이다. 1940년대 조선사편수회에서 사진으로 촬영하여 인화한 것을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다.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일본공사관통유문 | 30.5×39.5cm

1894년 8월 일본공사관에서 작성한 기록물로 "일본이 동학농민혁명을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돕겠다. 조선인의 재물을 탐하지 말며 양국 병사는 서로 우애해야 한다"라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소장처: 천도교 중앙총부)

# 기념관 교육 체험 프로그램



## ☞ 프로그램 내용

어린이 : 어린이 전시실 관람, 동학농민군 캐릭터 공예품 만들기 등  
 청소년 : 상설 전시실 관람, 동학농민혁명의 이해(PPT),  
 동학농민군 깃발 만들기, 녹두 씨앗 심기 등

☎ 참가신청 및 문의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교육담당(063-536-1894)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어린이 전시실



‘1894년으로 가는 타임머신’을 전시 주제로 기념관 상설전시실 내 자리하고 있는 어린이 전시실은 어린이와 가족단위 관람객이 자연스러운 놀이와 체험을 통해 평등과 자주를 꿈꾸었던 동학농민혁명을 보다 더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894년 당시, 전국 각지에서 보국안민을 위해 동학농민군의 일원으로 당당히 활동했던 나이 어린 소년장수와 아기접주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으며,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에  
각종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관람안내

- **관람시간** | 하절기(3월~10월) 09:00~19:00 / 입장시간 09:00~18:00  
동절기(11월~2월) 09:00~18:00 / 입장시간 09:00~17: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은 휴관

- **관람료** | 무료

## 예약안내

예약신청은 관람희망일 1개월 전부터 5일 전까지 가능하며,  
예약취소는 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예약승인은 예약인원 범위 내에서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해드립니다.

- **신청대상** | 전시설명을 희망하는 내·외국인(5인 이상)

## 찾아오는 길



56149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063-538-2894

동학농민혁명기념관 063-536-1894

Fax 063-538-2893

홈페이지 [www.1894.or.kr](http://www.1894.or.kr)

E-mail [1894@1894.or.kr](mailto:1894@1894.or.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reat1894>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great189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